

##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이혼(별거)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유 경 희<sup>†</sup>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 기 중

가톨릭대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이혼(별거) 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혼(별거 포함)여성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I 집단은 여성주의 집단상담을, II 집단은 자아성장 집단상담을 실시하였으며, III 집단은 무처치 집단이었다. 집단상담 실시 전과 후의 심리적 적응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에 자아존중감, 우울(BDI),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과정중의 수용성 정체성,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치들의 사전·사후점수를 비교 분석하였고, 다음에 사후·사전검사 점수의 차이(변화량)를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주의상담 집단과 자아성장상담 집단은 무처치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그리고 우울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과정 중 수용성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주의상담 집단과 자아성장상담 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특히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측면에서는 여성주의 상담이 효과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에서는 두 집단 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여성주의 집단 상담이 우울정도를 낮추고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혼(별거)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주의 집단상담을 개발·구조화하여 시도하였다는 점,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이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지를 자아성장 집단상담과 비교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라는 점, 이혼 여성들의 문제를 집단상담의 장에서 표현하고, 경험을 나누며, 현실의 삶에서 대안을 찾는 기회가 된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주요어 : 여성주의 집단상담, 자아성장 집단상담, 심리적 적응, 자아존중감, 우울, 여성주의 정체성, 수용성, 생활 만족도

<sup>†</sup> 교신저자 :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E-mail : yutough@womenlink.or.kr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변화 중 눈에 띄게 나타나는 영역이 이혼이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으나 이혼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고 이혼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은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혼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는 경제적인 안정을 돕는 취업 훈련의 실시, 직업으로의 연결, 이혼여성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의 실시,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 등을 들 수 있다(성정현 1997, 신은주 1995, 여성연합 2000).

이혼여성의 적응이란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지위나 전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의 독립적 정체감을 확립하고 일상생활의 제반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Kitson & Raschke, 1981). 허정원(1998)의 연구에서는 연령, 가족형태, 이혼유형, 이혼후 기간 등은 이혼여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보다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영역이 이혼여성의 적응에 더 영향을 미치므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실천의 장에서의 개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혼여성들은 이혼과정에서, 이혼후 초기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심리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한다. 이혼과 관련한 정서적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문제, 사회적인 소외 등을 다루고 지원할 수 있는 이혼 당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여성에게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혼후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시급하다.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평등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은 경험을 가진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여성의 경험을 소중히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삶을 이해하려 하고 여성 개인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삶의 변화를 위해 힘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Rawlings와 Carter(1977)는 여성주의 상담은 치료적 가치와 전략에서 여성운동의 철학과 가치에 역점을 두고 여성의 삶을 변화시켜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이라 하였다. 삶의 변화를 위한 의식향상 방법론의 접근, 폭력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귀인시키지 않고 불평등한 성별위계로 인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여성주의 상담 접근에 대한 효과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박애선 1993, 신은주 1995, 정소영 1985, 정춘숙 1997).

본 연구는 이혼여성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사회적인 편견으로 위축되고 우울해지며 자아존중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주의 집단상담을 통해 여성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성주의적인 접근과 더불어 이혼여성에게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간의 집단상담은 집단구성원들 간의 공통분모로 인한 연대와 상호작용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들의 지지보다 더 유의미하다. 사회적 지지망이 가족이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때 이혼적응의 수준이 높다는 Scott(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성정현, 1997 재인용).

본 연구의 의미는 이혼(별거)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주의 집단상담, 자아성장 집단상담, 무처치 집단 간의 상담효과를 비교 분석해 봄으

로써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이혼 이후 겪게 되는 상실감, 심리적 갈등, 정서적인 적응, 역할부담,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대인관계 문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비교집단으로 자아성장 집단상담을 선정함은 개인의 자아성장을 통해 생활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게 돕는 데 초점을 두어 실시한 집단과 개인과 불평등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되는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여성주의 집단상담과 비교, 실시 후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우울, 수용성(여성주의정체성 발달과정 중), 생활만족도의 측면에서 여성주의 집단(I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비여성주의(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II 집단), 무처치 집단(III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이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더 효과적인가를 살펴보았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자가 일하고 있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 이혼(별거)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주의 집단상담을 실시함을 일간지와 생활정보지에 홍보하였다. 이를 통해 모여진 이혼(별거) 5년 이내의 30-40대 여성 12명이 I 집단(여성주의 상담 집단)으로 정해졌다. II집단(자아성장 상담 집단)은 서울시 소재 종합복지관 가정폭력 일시보호시설에 거주, 퇴소한 이혼(별거)여

성 30-40대 집단 12명이며 III집단은 무처치 집단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인력개발센터>에 여성실직가장 직업훈련을 받고자 참여한 30-40대 이혼(별거)여성들이다. I 집단의 이혼(또는 고려) 원인은 외도, 폭력, 경제 갈등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II집단의 주 이혼 원인은 폭력이었다. 집단대상자의 동질성 확보가 중요하나 실제 대상자를 확보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의 한계가 있었다. 홍보를 통해 먼저 구성된 집단에 여성주의 상담을 실시하고 후 집단을 외부요청에 의한 집단에 실시하게 됨으로 자아성장 상담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다만 모든 집단이 경제력, 자녀교육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삶에 대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은 공통된 특성이었다.

### 집단상담자

I 집단과 II집단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혼 여성에 대한 교육(여성단체 활동가 경력 10년간 여성대상의 여성학 관련 교육 경험)과 상담·집단상담에 경험(상담심리사: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집단상담사: 한국 상담학회)이 있는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 집단실시

여성주의 집단상담은 2001년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 1회 매주 3시간 30분 동안 총 7회기로 진행(총 25시간 정도)되었다. 실험집단인 I 집단(여성주의 상담 집단)은 12명이 시작하였으며 1회기 프로그램 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10명의 사후검사 자료를 얻었다. 비교집단인 II집단(자아성장 상담 집단)은 2001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I 집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12명이 시작, 최종 9명의 자료를 수

집하였다. III집단(무처리 집단)은 사전, 사후검사 시 15명이 참여하였으나 설문지 응답이 일부 누락된 4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11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집단상담 내용

### 여성주의 집단상담

이혼(별거) 5년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정서적인 지지와 수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구성하였다. 정소영(1985)의 의식향상훈련 프로그램, 박애선(1993)의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가족과성상담소>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집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별거)하기까지의 과정을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신에 대한 개방·탐색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셋째, 나 자신의 문제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자신에게 보다 힘을 부여하는(empowerment) 접근을 하고자 한다.

### 자아성장 집단상담

가정폭력에 의해 일시보호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이혼(별거)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요청한 기관의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 구성하였다. 자기성장 프로그램과 Margaret H. Hoopes (1984)의 이혼적응 시 강인함(Strength)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다음은 집단의 목표이다. 첫째,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자신에 대한 개방·탐색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셋째, 집단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녀, 남편, 경제 등의 생활상의 문제를 꺼내 놓고 대안을 찾아본다. 넷째,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집단원에게 자기성장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접근을 하고자 한다. 표 1과 표 2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이다.

## 측정도구

###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 10문항을 번안한 것(1997, 노은여)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5. 8. 9. 10번은 역채점 문항이다.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5이다.

### Beck의 우울 척도 - BDI

우울척도는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Beck, 1967)의 우리말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울의 증상들이 전혀 없는 문항(0점)에서부터 증상이 심한 문항(3점)까지 4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기초로 수정한 것으로(박준화, 1999)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이다.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6이다.

### 수용성 척도 -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검사(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Scale; FIDS)

Worell, Stilwell과 Robinson(1991)의 Feminist Identity

표 3. 여성주의 집단상담 일정 및 내용

횟수	주제별 프로그램 내용	집단상담 기법
1회	집단에 대한 소개, 집단규칙 정하기 여성주의 집단상담이란? / 여성주의 정체성이란? * 나에 대한 소개 * “변화되고 싶은 나”, 새로운 ‘나’만나기 - 별칭 짓기 *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은? / 피드백 주고받기 느낌 나누기	성역할 분석(Sex-role analysis) 의식향상(Consciousness raising) 주장훈련(Assertiveness training) Empowerment
2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성격유형(MBTI)검사를 통한 나와 주위사람들에 대한 이해 * 효과적인 의사소통 -자기표현(자기주장)훈련 느낌 나누기	재명명 (relabeling) 힘의 분석(Power analysis) 주장훈련(Assertiveness training) Empowerment
3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느낌카페 I : 이혼경험 나누기- “이혼(별거)전과 후의 느낌” 이혼과정에 대한 개방과 공유- 자신의 억눌린 감정의 표현 느낌 나누기	의식향상(Consciousness raising) 주장훈련(Assertiveness training) Empowerment
4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느낌카페 II : 이혼경험 나누기- “이혼(별거)전과 후의 느낌” *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확인 느낌 나누기	의식향상(Consciousness raising) 주장훈련(Assertiveness training) Empowerment
5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여성과 남성의 차이?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의 비교 * 성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 나누기 *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 1 - 개인의 문제와 사회구조적인 문제 분리하기 느낌 나누기	성역할 분석(Sex-role analysis) 의식향상(Consciousness raising) 재구성(Reframing) Empowerment
6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나는 누구인가? - 여성으로의 사회화 과정 * 가치관 경매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느낌 나누기	성역할 분석(Sex-role analysis) 의식향상(Consciousness raising) Empowerment
7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나의 인생지도 그리기- Life Event * 나의 긍정적인 경험은? “ *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 2 - 잠재력 찾기 * 타인의 눈을 통해 비춰진 내 모습은? * 촛불의식-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느낌 나누기 / 총 평가	의식향상(Consciousness raising) 힘의 분석(Power analysis) 주장훈련(Assertiveness training) 계몽적 전략(Demystifying raising) Empowerment

표 4. 자아성장 집단상담 일정 및 내용

회기	주제별 프로그램 내용	집단상담 기법
1회	문제해결 집단에 대한 이해 / 신뢰관계 형성하기 집단규칙 정하기 * 나에 대한 소개 * “변화되고 싶은 나“ 새로운 ‘나’만나기- 별칭 짓기 * Social Atom - 현재 나의 인간관계는? 느낌 나누기	자기이해 자기개방 경청과 자기표현 현실요법 Empowerment
2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느낌카페 I : 이혼경험 나누기- “이혼(별거)전과 후의 느낌” 감정 표현하기 / 정서적 감정의 공유 이혼과정에 대한 개방과 공유- 자신의 억눌린 감정의 표현 느낌 나누기	자기이해 자기개방 경청과 자기표현 Empowerment
3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느낌카페 I : 이혼경험 나누기- “이혼(별거)전과 후의 느낌” * 사회적지지망에 대한 확인 느낌 나누기	자기이해 자기개방 경청과 자기표현 Empowerment
4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결혼생활 중 힘들었던 것- 부정적인 피드백 * 결혼생활 중 즐거웠던 것- 긍정적인 피드백 * 현시점에서 다시 생각하기 느낌 나누기	자기이해 및 탐색 경청과 자기표현 Empowerment
5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 이혼후 자녀가 느끼는 감정 이해, 수용 - 아이와 더불어 살기 * 문제해결, 이렇게 하자 1 - 브레인스토밍 느낌 나누기	경청과 자기표현 자녀교육 상담 문제해결 중심 Empowerment
6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문제해결, 이렇게 하자 2 - 브레인스토밍 느낌 나누기	경청과 자기표현 문제해결 중심 Empowerment
7회	지난주 경험 나누기- 나를 위한 이벤트 * 하고 싶은 것, 해야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 자기표현, 피드백 듣기 느낌 나누기 / 총 평가	경청과 자기표현 현실요법 Empowerment

Development Scale(FIDS)을 박애선(1993)이 번안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수용성(acceptance), 폭로(revelation), 새겨듦(embeddedness), 참여(commitment)등의 4가지 하위범주로서 32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수용성에 해당하는 10문항을 골라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차별과 문화적 편견들을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박애선에 의한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76이다.

### 생활만족도 척도

1994년 양옥경에 의해 개발된 척도(박경숙, 1996)를 사용하였다. 의식주의 인간생활 기본영역으로부터 주관적인 삶의 질까지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8개의 하위영역으로 의식주 영역(1-5번), 대인관계 영역(6-8번), 신체 및 정신 건강 영역(9-13번), 일 영역(14-15번), 경제부분 영역(16-17번),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영역(18-21번), 행복감 영역(22-24번), 자율성 및 자아감 영역(25-27번)으로 나뉘어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이며 낮을수록 만족스럽지

못함을 의미한다. 10, 11번은 역채점 문항이다. 양옥경에 의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0이다.

### 분석방법

먼저 자아존중감, 우울(BDI), 수용성, 생활만족도에 대해 사전·사후에 측정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주의상담 집단, 자아성장상담 집단 프로그램의 실시가 자아존중감, 우울(BDI), 수용성,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쌍별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후검사-사전검사)의 변화량을 변량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 for WINDOW) 프로그램 (Ver 10.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표 5. 각 집단별, 시기별 검사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집단명	종속변인 시기	자아존중감		우울		수용성		생활만족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여성주의상담 집단 (I 집단)		32.60 (8.29)	38.50 (4.30)	15.80 (13.28)	6.10 (6.79)	18.50 (4.81)	16.80 (4.98)	67.80 (18.89)	89.20 (19.53)
자아성장상담 집단 (II 집단)		34.00 (8.46)	40.11 (5.56)	12.00 (10.85)	5.22 (4.44)	20.22 (5.83)	14.78 (5.80)	75.89 (17.37)	84.44 (17.56)
무처치 집단 (III 집단)		35.09 (4.66)	36.55 (4.23)	15.27 (6.66)	12.00 (7.31)	23.09 (3.59)	23.73 (4.76)	71.73 (10.84)	75.00 (12.33)

알아보는 것이었다. 심리적 적응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우울,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과정 중 수용성정체성,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여성주의 집단상담(I 집단, n = 10), 자아성장 집단상담(II집단, n=9), 무처치(III집단, n =11)의 개인적 사전·사후 검사 자료를 집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집단간에 사전검사 점수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를 집단끼리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집단간의 처치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후검사 점수-사전검사 점수)의 변화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그 변화량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무처치 집단에 비해 다른 두 집단이 현저한 적응상의 향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나 생활만족도는 점수의 수치가 클수록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우울의 경우 수치가 작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쪽으로의 심리적 적응상의

향상을 의미한다. 또한 수용성의 경우도 점수 수치가 작을수록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의식하고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정하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여성주의 집단상담이나 자아성장 집단상담은 모두 심리적 적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경향도 비슷하다. 특히 생활만족도의 측면이나 우울의 측면에서는 여성주의 집단상담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과정 중 수용성 정체성의 측면에서는 자아성장 집단상담이 다소 더 변화가 있었다. 한 변인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자아존중감의 분석

집단상담 처치 전·후에 측정한 집단별 자아존중감 점수를 정리하고 전·후 점수 간 차이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여성주의상담 집단이나 자아성장상담 집단 모두 집단상담 실시 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차이

표 7. 각 집단별 검사 점수 변화량

집단명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우 울	수 용 성	생활만족도
여성주의상담(I)집단		5.90	-9.70	-1.70	21.40
자아성장상담(II)집단		6.11	-6.78	-5.44	8.56
무처치(III) 집단		1.45	-3.27	0.64	3.27

표 5. 집단별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집단	사전	사후	변화량 평균(표준편차)	t값
여성주의상담 집단(I)	32.60	38.50	5.90(6.26)	-2.98*
자아성장상담 집단(II)	34.00	40.11	6.11(5.86)	-3.13*
무처치 집단(III)	35.09	36.55	1.45(3.05)	-1.58

\*  $p < .05$



표 8. 집단별 자아존중감 점수의 변화(사후-사전)에 대한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144.15	2	72.08	
집단내	720.52	27	26.69	2.70
전체	864.67			

(변화량)도 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무처치 집단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두가지 집단상담 모두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담이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변화량을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세 집단 간의 자아존중감 점수에서의 변화량을 변량분석 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의 결과는 세 집단간의 자아존중감 변화량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 [ $F_{(2, 27)} = 2.70, n.s$ ]을 알 수 있다. 표 5와 표 6을 종합해 보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담유형간의 차이는 없지만 여성주의상담 집단 I 과 자아성장상담 집단 II 모두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아존중감 점수의 변화가 세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F_{(2, 27)} = 2.70$ ]. 공변량(ANCOVA)분석의 결과 세 집단간의 통계적 의미는 유의하였다. [ $F_{(2, 26)} = 3.93, p < .05$ ]

우울의 분석

집단상담 처치 전·후에 측정된 집단별 우울(BDI)점수를 정리하고 전·후 점수 간 차이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듯이 여성주의상담 집단의 우울점수 평균은 사전검사에서 15.80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6.10으로 매우 낮아져 그 변화량은 9.70이나 되었다. 또 자아성장상담 집단의 경우도 12.00에서 5.22로 6.78만큼 우울이 감소하였고 무처치 집단의 경우도 3.27만큼 낮아졌다. 이러한 전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이런 변화량이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변량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서 보듯이 우울의 변화량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I 집단의 변화량이 9.70 [ $F_{(2, 27)} = 1.85$ ] 으로 II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I, II, III집단의 변화량이 9.70, 6.78, 3.27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그 변산이 너무 컸기

표 7. 집단별 우울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집단	사전	사후	변화량 평균(표준편차)	t값
여성주의 상담 집단(I)	15.80	6.10	-9.70(9.44)	3.25**
자아성장 상담 집단(II)	12.00	5.22	-6.78(8.51)	2.39*
무처치 집단(III)	15.27	12.00	-3.27(4.52)	2.40*

\*  $p < .05$  \*\*  $p < .01$

표 10. 집단별 우울점수의 변화(사후-사전)에 대한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217.63	2	108.82	
집단내	1585.84	27	58.74	1.85
전체	1803.47	29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 우울 점수의 변화량은 I 집단, II집단, III집단 순으로 차이가 나는 경향성을 뚜렷이 보였다.

표 7과 표 8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무처치(III)집단은 사전·사후 점수 간에 차이는 있었으나 그 폭은 작은 편(3.27)이었고, 여성주의상담 집단에서 변화의 폭이 가장 컸다(9.70).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가장 우울을 감소시켜 주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공변량(ANCOVA)분석의 결과, 세 집단간의 통계적 의미는 유의하였다. [ $F_{(2, 26)} = 5.23, p < .05$ ]

여성주의정체성 발달과정 중 수용성의 분석

집단상담 처치 전·후에 측정한 집단별 수용성

점수를 정리하고 전·후 점수 간 차이 검증 결과를 보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듯이 I 집단은 수용성의 평균이 18.50에서 16.80으로 감소하였고, II집단은 20.22에서 14.78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처치를 하지 않았던 III집단은 23.09에서 23.73으로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I 집단은 수용성이 사전보다 사후에 1.70점 감소하였는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t = 1.30, n.s.$ ). II집단은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수용성이 5.44점 감소하였고 그 차이는  $t = 2.90, p < .05$ 로 유의미하였다. III집단은 수용성 점수가 오히려 0.64점 증가하였는데 그 차이는  $t = -0.45, n.s.$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은 수용성 점수의 변화가 세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용성의 사후점수에서 사전점수를 뺀 값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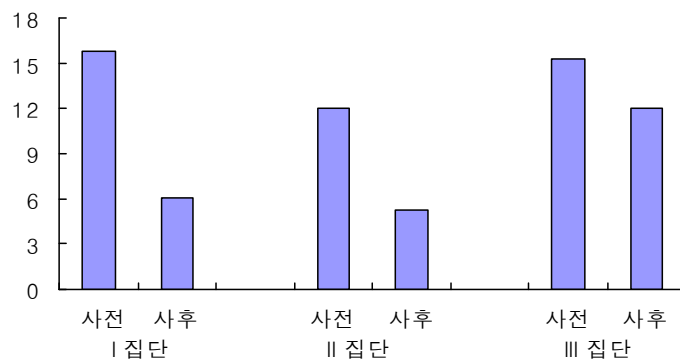


그림 1. 각 집단의 측정시기별 우울 비교

표 9. 집단별 수용성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집단	사전	사후	변화량 평균(표준편차)	t값
여성주의상담 집단(I)	18.50	16.80	-1.70(4.14)	1.30
자아성장상담 집단(II)	20.22	14.78	-5.44(5.64)	2.90*
무처치 집단(III)	23.09	23.73	0.64(4.72)	-0.45

\*  $p < .05$

표 10. 집단별 수용성점수의 변화(사후-사전)에 대한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사후검증
집단간	184.10	2	92.05		
집단내	630.87	27	23.37	3.94*	II > III
전체	814.97	29			

\*  $p < .05$

구하여 세 집단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듯이 세 집단간의 수용성 변화량 차이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 $F_{(2, 27)} = 3.94, p < .05$ ]로. 사후검증 결과 II집단과 III집단만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변량(ANCOVA)분석의 결과, 세 집단간의 통계적 의미는 유의하였다. [ $F_{(2, 26)} = 6.23, p < .05$ ]

#### 생활만족도의 분석

집단상담 처치 전·후에 측정한 집단별 생활

만족도 점수를 정리하고 전·후 점수 간 차이 검증 결과를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여성주의상담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67.90에서 89.20으로 21.40점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자아성장상담 집단의 경우는 8.56점 높아졌고 무처치 집단은 3.27점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고 특히 여성주의 상담 집단의 경우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t = 4.73$ ). 생활만족도상의 변화량이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에

표 11. 집단별 생활만족도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집단	사전	사후	변화량 평균(표준편차)	t값
여성주의상담 집단(I)	67.80	89.20	21.40(14.32)	-4.73***
자아성장상담 집단(II)	75.89	84.44	8.56(18.15)	-1.41*
무처치 집단(III)	71.73	75.00	3.27( 4.63)	-2.35*

\*\*\*  $p < .0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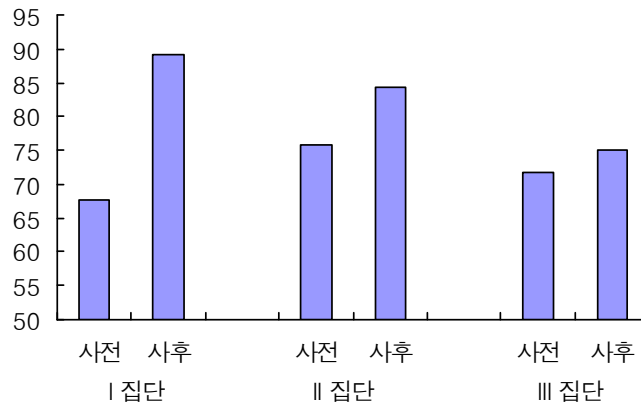


그림 2. 각 집단의 측정시기별 생활만족도 비교

제시되어 있다.

표 12를 보면 세 집단간의 생활만족도 변화량 차이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 $F_{(2, 27)} = 5.16, p < .05$ ]. 사후검증 결과 I 집단과 III 집단만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11과 표 12를 종합해 볼 때 여성주의상담 집단이 생활만족도에서 가장 큰 향상이 있었고( $89.20 - 67.80 = 21.40$ ), 그 다음으로 자아성장상담 집단( $84.44 - 75.89 = 8.56$ )이었으며, 무처치 집단의 경우 3.27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비록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경향성은 뚜렷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아닌 것은 표 11에서 보듯이 여성주의 상담 집단의 표준편차가 14.32, 자아성장상담 집단의 표준편차가 18.15

로 변산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공변량(ANCOVA)분석의 결과, 세집단간의 통계적 의미는 유의하였다. [ $F_{(2, 26)} = 4.76, p < .05$ ]

###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이혼(별거)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자아성장 집단, 무처치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집단원의 자아존중감에

표 14. 집단별 생활만족도의 변화(사후-사전)에 대한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사후검증
집단간	1791.90	2	895.95		
집단내	4692.80	27	173.81	5.16*	I > III
전체	6484.70	29			

\*  $p < .05$

미치는 효과를 보면, 여성주의상담 집단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32.60에서 38.50으로 증가하였고 자아성장상담 집단의 경우도 34.00에서 40.11로 상당히 증가한 데 반해 무처치 집단의 경우는 35.09에서 36.55로 거의 증가가 없었다. 처음 두 집단에서의 증가는 모두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였다. 자아존중감 점수의 변화가 세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의 결과는  $[F_{(2, 27)} = 2.70]$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록 I, II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공변량(ANCOVA) 분석의 결과는  $[F_{(2, 26)} = 5.23, p < .05]$ 로 세 집단간의 통계적 의미는 유의하였다. 여성주의, 자아성장상담 집단 프로그램 모두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집단원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I 집단의 우울점수는 15.80(표준편차 13.28)에서 처치 후 6.10(표준편차 6.79)으로 평균 9.70이나 감소하였다. II집단의 경우는 12.00에서 5.22로 6.78만큼 우울이 감소하였고 III집단의 경우는 15.27에서 12.00으로 3.27만큼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변화량은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_{(2, 27)} = 1.85]$  비록 I, II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공변량분석(ANCOVA)의 결과는  $[F_{(2, 26)} = 5.23, p < .05]$ 로 세 집단간의 통계적 의미는 유의하였다. 사전·사후검사의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여성주의 상담 집단이 가장 점수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집단원의 여성주의정체성 발달과정 중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I 집단의 경우는 수용성이 처치 전의 18.50에서 16.80으로 1.70만큼 감소하였으나 II집단의 경우는 20.22에서 14.78으로 5.44만큼 감소하였다. 또

III집단의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23.09에서 23.73으로). 이 결과로 자아성장상담 집단의 경우에만 처치 전후 수용성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 집단간의 수용성 변화량의 차이를 변량분석 하였을 때도 II집단의 경우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_{(2, 27)} = 3.94, p < .05]$ . 그 차이는 II집단과 III집단의 특성 차이 때문이었고, II집단이 오히려 수용성 정체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비교집단인 자아성장상담 집단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로 외도나 성격차이등 기타 다른 원인의 이혼(별거)여성들(I 집단)에 비해 보다 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의미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수용하는 흡인력이 커서 그 변화의 폭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집단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I 집단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처치 전 평균 67.80에서 89.20으로 증가하였고, II집단의 경우 75.89에서 84.44으로 증가하였으며 무처치 집단은 71.73에서 75.00으로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I 집단의 경우는 21.40점 증가되었고, II집단은 8.56점 증가되었으며, III집단은 3.27점 증가되어 세 집단 모두 전·후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변화량은 I 집단이 가장 컸다. 또한 세 집단간의 생활만족도 차이를 변량분석 하였는데 세 집단간의 생활만족도 변화량 차이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F_{(2,27)} = 5.16, p < .05]$ . 사후검증 결과 I 집단과 III집단만 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아쉬운 점은 I 집단과 II집단 간의 생활만족도상의 변화량의 차이는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사례 수가 적고 점수의 변산이 큰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경향성은 뚜렷하게 보여주었으므로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혼(별거)여성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이혼(별거)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주의 집단상담을 경험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이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지를 자아성장 집단상담과 비교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후 이혼여성의 상담 접근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의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직도 현실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이혼여성들의 문제를 집단상담의 장에서 표현하고 그 경험을 소중히 하며 서로 나누고, 자신의 문제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구분할 줄 알게 하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서 대안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선정에 있어 비슷한 상황의 집단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원인 등 각 집단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이혼원인, 나이, 경제상황, 자녀상황등 상황이 비슷한 집단원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자와 집단상담자가 동일인이어 검사결과와 프로그램 진행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셋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과정이 짧았다. 기관의 형편상 7회기, 총 25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 이혼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었다. 넷째,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주의 집단상담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여 사전조사를 통해 이혼여성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경험적, 통계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추후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혼여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 이혼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는데 적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에서 심리적 적응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측정도구를 찾아내는 작업과 동시에 이해하기 쉬운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혼후의 심리적 갈등, 역할 부담, 사회적 편견과 낙인, 대인관계 문제 등을 풀어갈 수 있는 심리적 적응 프로그램의 연구를 위해 상담현장에서 이들을 만나고 있는 상담자들 간에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석주역 (1995), *우리속에 숨어 있는 힘*.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곽배희 (1994). *이혼의 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애 (1994). *여성중심 상담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 여성의 전화.
- 김예숙 (1997). *여성상담에 대한 대상관계 이론의 접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예숙 (1998). *여성주의 상담에 관한 소고*. 춘해대학교 논문집, 제10집, 7-18.
- 김예숙 (1999). *여성주의 이론과 여성주의 상담*. 춘해대학교 논문집, 제11집, 353-361.
- 김혜련 (199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가부장적 결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 논문.
- 노은여 (1997). 결혼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이 기혼남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현숙 (1999). 이혼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숙 (1999). 여성장애인의 성역할태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명숙 (1998). 여성주의 상담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성주의 정체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애선 (1993).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박준화 (1999). 역기능적 가족구조가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진아 (2000). 여성상담기관의 여성주의 상담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성현 (1997). 성역할태도와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은주 (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소영 (1985). 의식향상집단이 여성의 양성공존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춘숙 (1997). 매맞는 아내에 대한 여성주의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선화 (1995). 여성심리와 여권주의 상담법. 여성연구논집 6집, 145-154.
- 최혜림 (1989). 여성상담의 과정 및 기술. 인간이해 10, 49-57.
- 최혜림, 김영희 (1996). 한국여성의 심리장애와 여성치료의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 (1), 153-167.
-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비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자립지원방안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부모 가족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한국 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1999). 한부모를 위한 가이드 자료집.
- 허정원 (1998).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rnett, R., & Baruch, G. K. (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 Brown, L. S. (1994). Gender-role analysis: A neglected component of psychological assess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3, 243-248.
- Carter, E., & Orfanidis, M. (1996). *Family Therapy with One Person and the Therapist's Own Family in Family Therapy*.
- Clinebell (1981). *Contemporary Growth Therapies*. Abingodon.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iedrick, P. (1991). Gender Differences in Divorce Adjustment. In S. S. Volgy (eds), *Women and Divorce / Men and Divorce: Gender Difference in Separation, Divorce and Remarriage*. New York;

- The Haworth Press.
- Emmons, R. A. (1992), Abstract versus concrete goals Personal striving level, physical il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 Enns, C. Z., Hackett, G. (1992). Comparison of feminist and nonfeminist women's reactions to variants of nonsexist and feminis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 33-40.
- Enns, C. Z. (1997). *Feminist theories and feminist psychotherapies*. New York, The Haworth Press, Inc.
- Greenspan, M. (1983). *A new approach to women and therapy*. New York: McGraw-Hill.
- Harding, (Sed.) (1987), *Feminism and Methodology: Social Science Issues*. Indiana Univ. Pres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 Kitson, G., & Raschke, H. (1981). Divorce research: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Divorce*, 4, 1-38.
- Margaret H. H., Barbara L. F., & Sally H. B. (1984). *Struct family facilitation programs: Enrichment, Education, and Treatment*.
- Vera, M. I. (1990). Effects of divorce groups on individual adjustment: A Multiple methodology approach. *Social Work & Research Abstracts*, vol. 26.
- Wallerstein, J. S. & Blakeslee S. (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Y; Ticknor & Fields.
- Weiss, R. S. (1975).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Weiss, R. S. (1985). The impact of marital dissolution on income and consumption in single-parent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5-127.
- Worell, J. (1980). New directions in counseling wome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March, 477-484.
- Worell, J, and Remer, P. (1992).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An empowerment model for women*. New York; Wiley.



## The Effect of Feminist Group Counseling on Psychological Adaptation of Divorced and Separated Women

**Kyung-Hee Yoo**

Family and Sexuality  
Counseling in Korean Womenlink

**Ki-Joong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know that how much the feminist group counseling has effect on divorced women psychologically. For the research, the targeted women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subjected women in the group I was handled by the feminist group counseling program. The group II was treated by 'the self-growing group counseling'. Finally, the group III was the no-treatment control group. In addition, all groups were surveyed by questionnaire to search basically. To check 'psychological adaptation' in between the counseling program, each group was examined two times in terms of self-esteem,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nd 'acceptance among development of feminist identity'. For the carefully compiled research, the measured scores of pre-and-post-test in each research were analysed to make a comparative study. By doing so, the research shows several crucial results. Under this result, group I and II recorded a meaningful increase i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nd a dramatic drop in depression and 'acceptance among development of feminist identity'. And when the results are compared between group I and II, the counseling programs of group I and II are more effective i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nd in 'acceptance among development of feminist identity' respectively. But in self-esteem part, the two groups show littl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report, the group I research has a potential effect on letting up depression and increasing 'life satisfa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has led us to the following values of importance. First, the feminist group counseling is adopted to this research for the divorced and separated women. Second, this survey unveils through experiments that how much the group I compared with group II has effect on 'psychological acceptance' of the divorced women, which served as basic material to help counsel them down the road. Third, this report exposes difficult issues of the divorced women by grouping counseling. Also, this research will be acted as a valued experience and opportunity to other would-be divorcee, leading to create self-help group. Finally, disclosing the limits, the research opens a new way to improve them.

*Keywords : Feminist group counseling. Self-growing group counseling. Psychological adaptation. Self-esteem. Depression. Feminist identity. Acceptance. Life satisfaction*